

# 신념의 힘 성공을 향한 의식혁명

당신의 인생에 마술을 걸어라!!

사세휘(謝世輝) / 손성애 옮김

## 사세휘(謝世輝)

1929년 대만에서 출생 대만 대학을 졸업 후 나고야 대학 대학원에서 원자 물리학 박사학위 취득. 이학 박사. 前 동해(東海; 도카이) 대학 교수.

과학의 진보·발전은 반드시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문명·문화사 및 역사학으로 전환함. 머피의 법칙을 비롯한 잠재능력의 활용법에도 조예가 깊으며, 그의 독자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인생론은 현대인에게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1. 잠재 의식의 구조와 그 신기한 힘

### 잠재의식에 빛을 비춰라

**최** 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폭력에 의존하는 상처받기 쉬운 아이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입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사회 생활에 지장을 받는 어른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각계 각층의 저명 인사들 사이에서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는데, 난 이러한 현상을 근대 합리주의가 불러온 폐해의 하나로 보고 있다.

근대 합리주의란 바꿔 말하자면 '과학 만능', '물질 만능', '이성 만능'의

---

세계관이며, 합리적 설명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는 특히 전후(戰後) 부흥을 위한 과학 기술과 경제를 우선시하고 감성이나 영성, 인간 의식의 문제를 경시해 왔다. 상처받기 쉬운 아이들, 마음의 상처를 지닌 채 부모가 되어 버린 어른들 등 모두가 하나같이 경제 효율을 우선시 하는 가치관이 낳은 희생자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1970년대에 들어서자 사회는 비로소 인간의 의식 밑바닥과 비합리적인 것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서는 이것이 일반화되었다. 1990년대 후반인 오늘날에는 심리 카운셀러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과거 어두운 분위기였던 대학교 심리학과에도 입학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 매스컴의 여론 조사에서 전생을 믿거나 초능력과 기(氣)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에 흥미를 느낀다고 대답한 사람의 수가 20대에서만 7할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초, 이성 만능인 서양에서 이미 인간의 이성이 마음과 굉장히 상반되는 것임을 지적한 학자들이 있었다. 정신분석학자인 G·프로이트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의식을 우리들이 보통 자기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표층 의식)과 지금까지 중시되지 않고 있던 부분(잠재 의식) 두 가지로 나누었다. '이성'과 '지각'을 합친 '표층 의식'은 전체의 2할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8할은 이성이나 지각으로 짚 수 없는 무의식(잠재 의식)의 영역으로 지적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잠재 의식이란 '본능', '습관의 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후에 등장한 심리학자 융은 그러한 개인적인 잠재 의식 외에도 타인이나 우주 의식과 이어지는 공통된 잠재 의식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는 우선 제일 먼저 인간의 마음 속에 잠들어 있는 신기한 힘과 그 활용법에 대해 기술하기로 한다.

## 개인의 잠재 의식과 나쁜 습관

---

개인의 잠재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주의해야 할 것은 습관화하는 '마음'이다.

우리들은 일상 생활에서 실로 많은 습관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익히고 있다. 유아기에 주위로부터 주입되거나 오랫동안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사이에 습관은 개인의 인격과 성격의 일부로까지 자라난다.

그것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손을 내밀줄 아는 아름다운 일이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자기 안에 문제점화 되고 있다. 음식에 대한 편식증,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의존증, 각종 알레르기도 습관의 '마음'이 불러 일으키는 폐해의 일종이다.

예를 들면 최근, 우유나 계란, 콩제품을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발진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체질의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주요 치료법은 앞서 말한 원료로 만든 가공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정도가 고작이다.

그러나 이 3가지 식품으로도 안되면 급기야는 쌀과 생선, 야채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어 단백질 부족은 물론 스트레스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고 만다. 알레르기의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지만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결정적인 치료법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알레르기의 진짜 원인이 개인의 잠재 의식 하에 있음이 최근 밝혀졌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인간은 '마음의 창고'에 어떤 염(念)을 보내고 저축하는가에 따라서 육체 상태는 물론이요 자기의 인생도 좌우하게 된다.

마음이란 평소의 생각과 마음이 축적된 레코드(기록판)이다.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특정 음(音)이 잠재 의식을 깨우면서 행동을 제약하게 된다.

예를 들면 콩제품이 식탁에 오른 것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먹으면 발진이 생기니까 먹기 싫어!"라는 명령이 마음의 레코드에서 나오면서 그것이 뇌로 전달되어 설사나 복통, 사지의 긴장이라는 신호를 몸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마음의 레코드를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단순 최면(자기 최면)이라는 방법이 있다. 조용하게 눈을 감고 앉아서 "콩제품을 먹을 수 있어. 괜찮아."라며 자기가 자기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

사적인 이야기지만 나의 아내도 예전부터 계를 싫어해서 계를 먹으면 반드시 복통을 일으키고는 했다. 원래는 튼튼한 위장을 갖고 있는데도 어릴 때 계를 먹고 복통을 일으킨 씩씩한 체험이 잠재 의식에 박혀 있었나 보다.

하지만 최근에 단순 최면을 몇 번 반복하면서 계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간단한 방법이라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레코드에 새로운 음을 붙여넣으면 습관은 서서히 극복할 수 있게 된다.

### 콤플렉스도 습관화하는 마음 작용의 하나

“난 00가 안돼.” “00는 정말 싫어.” “00는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져.”라는 이른바 콤플렉스도 습관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보다 용모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여성일수록 항상 같은 색 옷을 입거나 어울리지 않는 화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는 잡지 화보에 나오는 모델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결국은 “내 주제에... 이런 건 다 쓸데없는 꿈이야.”라며 늘 하던 습관대로 부정적 언어에 끌려 다니게 된다.

“부자가 되고 싶어.” “건강해지고 싶어.”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게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더라도 “지금까지도 가난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등등 중얼거리면서 쉽게 마음의 레코드에 따르게 된다. 병원에서도 노인들이 서로 병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말끝에 “나이가 나인데...”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걸 가끔 볼 수 있다. 이래서는 진짜 건강해질래야 건강해질 수가 없다.

알레르기나 콤플렉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저 되는 대로 잠재 의식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의도한 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 안에서 한탄하는 부정적인 말을 걷어치우고 항상 “난 절대로 부자가 되겠어!” “반드시 건강해질 거야!” 또는 “더 예뻐질 거야.”라고 믿으면서 계속 염원하는 것이다.

### 공통 잠재 의식의 신기함

---

공통의 잠재의식(또는 집합적 무의식-여기에서는 편의상 이하 공통 의식으로 약칭함.)이란 동서고금의 인간 의식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다.

인간의 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성의 세계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오히려 영적, 종교적 감각에 가깝다. 사실 고대 인도 사상에는 개인의 잠재 의식에 해당되는 마나식(識), 공통 의식을 나타내는 아라야식(識)이 있다.

우리들 인간의 마음은 의식 밑바닥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평소에 생각하는 이미지나 상념의 모든 것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쁜 예가 되어서 실례가 될지 모르겠다.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 동경 한복판인 신쥬쿠에서 한창 잘 나가던 인기 스타가 사무실 옥상에서 뛰어내린 자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후 일본 각지에서 연쇄적으로 십수 명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역시 젊은이들이 갖고 있던 “답답한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공통된 염원이 가장 부정적인 형태로 서로 반응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처럼 불경기가 계속되거나 불순한 사건이 빈발하면 그것이 공포심과 불안한 마음이 되어 사람들의 공통 의식에 새겨지게 되고 세상 전체를 부정적 측면으로 보는 것이 일반화되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통 의식은 흔히 ‘예감’이라 불리우는 텔레파시적인 능력을 가져오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위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최근 2, 3년전(1995년 여름경) 태평양을 요트로 향해하던 도중에 태풍을 만나 난파, 1주일 동안 해상을 떠돌다가 구출된 중년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발견되던 날 기자 회견에서 “고독하거나 외롭지는 않았습니까?”라는 기자의 물음에 “집사람한테 염력으로 매일같이 내가 있는 장소를 알려 주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대답했다.

---

옆에 있던 부인도 "메시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걸로 믿었고 그래서 불안하지 않았어요."라고 대답했다. 신문에는 '부부애의 산물'로 소개되었지만 특수한 능력이 없어도 다급할 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식이 깊은 부분에서 서로 이어져 있음을 알려준다. 이처럼 공통 의식에 흐르는 힘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좋건 나쁘건 그 사람의 운명과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 마음가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면, 공통 의식에 흐르는 힘을 성공하는데 살려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인지(人知)를 넘어선 무한한 지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주의 광대 무변한 세계와 자기의 마음이 공통 의식을 통해 이어져 있음을 아는 것이다.

용도 높은 현자로부터 태고의 예지(叡智)를 전해받는 꿈을 몇 번이나 꾸 뒤 에 꿈 해석을 통해 의식 밑에 있는 메시지를 해독하고자 노력했다. 이 때문에 용은 동료 학자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지역 학회로부터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마술사', '사기꾼'이라는 욕을 얻어먹었다. 하지만 무한한 지성(마음 속의 높은 현자)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훗날 그가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되었음은 오늘날 누구나가 인정하고 있다.

당신이 무한한 지성에 대해 충분히 마음을 열면 공통 의식을 통해 책상이나 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와 지혜를 만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 성공하기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 두 번째는 '마음가짐을 바꿀 것.' 이것은 개인의 잠재 의식, 공통 의식 쌍방에 다 해당되는 말이다. 사고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체크와 긍정적으로 전환(轉換)해야한다.

모처럼 우주로부터 온 귀한 메시지도 마음속에 의심이나 불안, 두려움 같은 잡념이 있으면 읽어낼 수가 없다.

---

길거리에 만연한 부정적인 정보에 반응하고 정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항상 체크하자. 그리고 과거의 습관이나 체험 가운데 부정적인 부분을 찾아내 추방하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 그릇에 긍정적인 염을 담아 보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인간이 마음을 새롭게 바꿀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론 당신이 지금까지 키워온 좋은 점은 보호, 유지하되 마음 속 잡음(부정적으로 습관화하는 마음)을 떨쳐버림으로써 우리들은 인생을 아주 새롭게, 그리고 운명까지 움직일 수 있게 된다.

## 2. 생명에너지를 활용하라

###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전지전능한 힘이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인간의 의식 저변의 세계에서는 실로 다양한 것들이 소용돌이치면서 서로 반응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 잡일에서부터 고도의 지적 작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기 의지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부로부터의 힘에 좌우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의 참다운 주인공이 되기는 어렵다. 인생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마술적인 힘의 획득과 활용을 빼놓을 수 없다.

동서고금, 수많은 선철(先哲)들은 마음의 법칙을 앎으로써 어떤 상황에도 좌우되지 않는 자기를 가꾸고 독창적인 능력을 살려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에게 있어 승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힘을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상식이다.

앞에서 90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 했는데, 4, 50년전 훨씬 이전부터 보이지 않는 힘의 활용법을 열심히 주창한 인물이 있었다. 심신통일법을 설명한 나카무라(中村 天風)씨다.

1876년에 태어나 1968년, 92세에 타계하신 이 분이 신봉했던 인물 중에는

---

東郷 平八郎, 山本 五十六 등의 군인에서 부터 原敬, 後藤 新平 등 전전(戰前) 정계의 중진들 외에도 일본 재계의 거물들과 문화, 예술, 체육계의 인사들까지 다양하다.

나카무라씨의 이론은 지금까지 내가 십여 권의 저서를 통해 소개해 온 미국의 신사고(新思考)의 가르침과도 공통된다. 그 진수를 정리하자면,

“이 세계는 조물주라 불리우는 전지 전능한 우주 영이 있다. 우주 영과 하나로 살아감으로써 인간은 최고의 힘을 발휘하고 마음 먹은 대로的人生을 살 수 있게 된다. 또한 우주 영은 인간의 생각 일체를 현실의 형태로 나타내고자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 자기들과 함께 우주의 진화에 참가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이다.

프로이트와 융, 그리고 후진 학자들은 잠재 의식의 구조를 명확하게 하는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하지만 잠재 의식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잡다한 정보가 지나치게 범람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나카무라씨의 일화를 섞어 가면서 전지 전능한 힘을 내편으로 만들기 위한 요령을 찾아보자.

## 우선은 전지 전능한 존재를 인정하고 믿어라

러일전쟁 당시 민완 스파이로 만주, 몽고를 돌아다니던 나카무라씨는 다년간을 무리해서인지 30을 갓넘긴 나이에 당시에는 불치병이던 폐결핵에 걸리게 된다. 각혈을 반복하던 나날중 의료의 한계를 느낀 그는 구도의 길, 즉 인생의 해답과 평생의 스승을 찾아 미국, 영국, 프랑스를 방문, 의사 자격을 따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요가의 성자인 칼리앗파 스승과 만나게 된다.

스승을 따라 인도로 향한 그는 그곳에서 육체를 단련하고 무념 무상과 호흡수련, 스승과의 문답을 되풀이하던 중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항상 우주의 영에게 감싸여 있으며 게다가 우주 영은 전지 전능한 힘을 갖고 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불리우는 것은 우주 영으로부터 인간에게만 부여되는 힘을 받고 있기



---

때문이다.”라는 걸 깨닫는다.

독자들 가운데는 “조물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창조주가 아닌가. 그런 건 받아들일수 없다.”며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굳이 말하자면 종교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늘어난 것도 전후 민주주의 및 전후 교육의 나쁜 결과이다. 특히 50세 전후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경향이 강한 것 같은데 그들의 청년기에는 좌익 사상이 판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에는 ‘종교적인 생각’이라 하여 선현들이 남긴 예지를 피해 다녀서는 성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종교적인 말로 들린다면 우주 영이 아니라 우주 에너지, 또는 생명 에너지, 무한한 힘 등 본인이 편한대로 명칭을 바꾸면 된다.

### 이성(理性)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어찌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이성(理性)만으로는 제대로 된 것을 알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나카무라씨가 앞서 말한 직관을 얻은 것도 “결핵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의학이나 생물학 분야에서 장기 이식, 시험관 아기, 복제 동물이 등장하고 과학의 진보가 극에 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해서 인간이 무(無)에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아니다. 또 기공(氣功)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설명도 뇌파나 심장 박동수의 변화 같은, 신체에 일어난 현상을 측정하고 있을 뿐 여전히 기의 본질은 못찾고 있다.

나는 결코 하나부터 열까지 불가지론자(不可知論者)는 아니다. 원래는 생물학자로 소립자론을 연구하던 사람이다. 하지만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은 시기에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며 자기 주장만 해서는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릴 뿐이다.

나카무라씨나 나 또한 그러했듯이 보이지 않는 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험된 사실을 통해 믿는 것밖에는 없다. 항암제를 포함해서 현재 서양 의학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약도 선현들이 경험으로 알고 이용하던 자

---

연 약초를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다.

경험의 위력은 크다. 경험을 통해 우주 영의 존재를 믿음으로써 마음의 마력이 보다 더 강하게 발동된다. 당신이 2, 30대로 아직 인생의 출발 지점에 있다면 당대 최고의 사람들이 활용하던 신기한 에너지를 온 몸과 마음을 통해 느끼도록 노력하라.

거기에는 우선 의심을 버리고 무한한 힘의 존재를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 신앙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나친 의혹으로 인생을 헛되이 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항상 적극적인 말, 생각, 행동을 갖고 임하라!

나카무라씨는 항상 마음을 적극적인 상태로 갖도록 되풀이해서 강조했다. 왜냐하면 우주 영은 인간이 무슨 일이든지 의욕을 갖고 열심히 임하지 않으면 힘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 평소에 사용하는 말의 쓰임에 충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그는 인도에서 수행하던 중, 스승으로부터 매일 영어로 “오늘은 어떤가요?(How do you do, today)”라는 질문을 받으면 “씩 좋지는 않습니다.(I am not quite well)”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어느날 스승이 “자네는 그런 말로 다른 사람까지 똑같은 기분으로 만들면 즐겁나?”라는 지적을 받았다.

아직 병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던 그는 “즐겁지는 않지만 병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스승은 그에게 “자네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인해 기분이 나빠지거나 고양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말을 소극적으로만 표현하면 신경 계통의 생활 기능도 나빠져서 결국 자네의 삶 자체가 나빠지게 되네.”라며 설교를 해주었다. 그는 또다시 경험을 통해 귀중한 것을 얻은 것이다. 그는 말한다.

“항상 말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경우에도 적극적인 말 이외의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다짐하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생 철학의 제1 원칙인 암시의 법칙을 훌륭하게 응용한 게 되므로 기대하지 않아도 건강과 운명은 완전해진다.”

말은 입으로 나오는 것만이 아니다. 인간이 마음과 머리 속으로 생각할 때도

---

언어의 나열이다. 잠재 의식은 정직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선별하는 일없이 그대로 흡수한다. 그러면 어느 사이엔가 그 사람의 기초 관념이 생기게 된다. 소극적인 생각이 기초가 되어서야 열의(熱意)가 생길리 만무하다. 우주 영은 소극적 관념 그 자체인 사람한테는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다.

## 감사와 환희를 결코 잊지 말라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환희의 염이다. 일반적으로 신이나 종교에 혐오감을 갖는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이나 곤란에 처했던 경험을 들추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한탄한다.

그러나 그런 사고로는 우주 영과 조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당신 자신의 일을 상상해 보라. 항상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한테 무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는가. 처음에는 자비심으로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몇 년, 몇십 년 불평 불만을 되풀이해서는 견뎌낼 재간이 없다.

우주 영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당신에게 인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인과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불행과 곤경은 표면적으로는 괴로움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의 승리의 초석이 되어 주고 있다.

마음이 물질주의에 뺏겨 있으면 재산 축적의 정도나 생활 수준 등 눈에 보이는 결과로밖에 인생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는 성장의 기회가 된 불행과 곤경도 단순한 엄벌로밖에 느끼지 못하게 된다. 우주 영의 존재를 인식하면 감사할 일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경영 컨설턴트인 후나이 사찌오씨는 감사하고 있을 때 기의 상태가 얼마나 고양되는지를 기계로 측정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보고에 따르면 절이나 신전에서 손을 모아 감사의 염을 올리면 커다란 기에 감싸이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 기라는 현상에 한해서 본다면 인간의 생명 에너지가 환희의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활기 넘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나카무라씨는 "우주의 신성한 영은 감사와 환희라는 감정을 통해 우주 영과

---

의 통로를 여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생명으로 용솨음 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고 말한다.

또 천재 발명가로 널리 알려진 마사키 가즈미씨는 “00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염을 앞서 가지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말  
한다.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굳이 과학의 판정을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당신이 인생 경험을 쌓고 조금  
씩 진리를 체득해 나가면 스스로 신념이 자라나 쉽게 우주 영과 조우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전지 전능한 무한한 힘의 존재를 인정할 것, 인생에 적극성을 갖고 임  
할 것,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우주 영과 타인에 대한 감사의 염, 그리고 환희  
의 마음을 잊지 말 것. 이것을 전제로 한 다음 인생 계획을 세우면 틀림없이 훗  
날 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3. 거대한 힘을 움직이는 비결

#### 무한한 힘(우주 영)에 대한 신뢰가 기적을 일으킨다

무한한 힘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만으로 인생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의사한테 버림받은 병이 낫거나 자금도 경험도 없어 도산할 것 같던 사업을 궤  
도에 올리거나, 또는 경영난에 빠졌는데 어찌어찌하다보니 지원금을 받아 도산  
을 면하는, 이른바 기적 같은 일이 당신의 인생을 방문하게 된다.

나카무라씨는 불치병인 폐결핵을 극복했지만 54세 때는 의사로부터 후두암  
진단을 받았다. 바로 수술 받을 것을 권유받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깨끗하게  
거절했다.

“인간은 때가 되면 죽는다. 살아 있는 한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 내 몸은 자  
연이 만들었다. 내가 살 필요가 있다면 살게 해줄 것이다.”

결국 암세포는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후 목소리가 막히는 일도

---

없이 92세까지 천수를 누렸다.

현재 일본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으로 있는 H씨도 우주 영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병에 절어 지내던 생활에서 해방된 케이스다. 그는 22세까지 위장약, 만성 위 무기력증, 십이지장궤양, 담석, 늑막염, 폐병 등 수많은 병에 걸렸었다. 당시에는 아직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병에 걸리면 의사로부터 “더는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 소식을 들은 친인척들이 그의 병상을 찾아와서는 동정의 눈길을 보내고, 혼자 있을 때마다 “이제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인가.”라며 하늘을 원망하는 마음을 안고 있었다.

그때, 아는 사람으로부터 우주의 진리에 대해 적혀진 책을 받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읽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三界는 唯心の所見’이라 적혀 있었다.

“인간의 본질은 무한 우주와 이어져 있다. 마음을 바꾸면 육체도 환경도 모두 바꿀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처음 들은 말이었지만 저자가 한 말의 위력이랄까, 읽은 순간에 온몸에 용기가 치솟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생각에 빠져 괴로워하는 걸 그만두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자 3년 동안 고통받던 만성 위통이 사라지고 폐병도 낫게 되었다. 이후,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좋아진다는 신념이 생겼다고 H씨는 말한다.

그 다음부터 병과는 전혀 인연없이 지금도 주말이면 골프를 즐기고 있다.

## 믿음은 짧고 강하게

나카무라씨나 H씨에게 공통되는 점은 강렬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말했듯이 마음의 마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힘과 조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힘의 위력을 믿지 않으면 안된다.

예를 들면 이전 독자로부터 “당신 말대로 하루에 3시간,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빌었지만 잘 안됐다.”라는 전화가 왔다. 그 사람한테 “소원이 진짜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했는가.” 묻자 “글쎄-”라며 그 사람은 얼버무리고 말했다. 우주

---

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 아무리 빌어도 효과가 있을 턱이 없다. 오히려 기도 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정신 집중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져 결국에는 "그런건 해봤자"라며 부정적인 면만을 축적하게 된다.

소원하는 내용을 종이에 써서 1회에 1분 정도 기도하는 동안에 강한 신념을 담아 그것을 읽는 행동을 매일 수차례 반복하는 쪽이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침, 저녁만으로도 좋다.(당신이 도저히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믿는 일에 저항을 느낀다면 우주 영을 상상하지 않아도 좋다. 자신의 꿈을 향해 정말 열성을 다해 전력 투구하면 무한한 힘이 자동적으로 반응해 노력에 상응한 성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 인간과 우주 영은 공동 작업자이다

지금까지 말했듯이 당신이 믿건 말건, 또 대우주 영, 신, 알라, 창조주, 기타 뭐라 불리우던 어떤 사람한테나 무한한 힘이 숨겨져 있다. 이 존재들은 당신이 빨리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쁨과 감사의 염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지상에 조금이라도 행복의 씨를 뿌릴수 있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다.

나카무라씨는 "인간은 누구한테나 조물주의 목적인 엘러베이션(elevation)에 순응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한다. 엘러베이션이란 '향상', 즉 존재의 의의를 높이는 것으로 당신이 인생에서 승리하고자, 자기 자신을 더 승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때 우주 조물주가 이 세계를 창조한 목적과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그 목적이란 '지구를 사랑과 행복과 창조성에 넘치는 별로 만들기' 외에 다름아니다. 그래서 우주 영은 순수한 마음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공헌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인간과 우주 영은 지구를 진화,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의 공동 작업자인 것이다.

목표가 크면 클수록 역경과 곤경에 처하는 일이 많다. 그럴 때, 평소에 신념을 아무리 굳게 가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해져서 "이 정도로 정말 괜찮을까."라며 불안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비약의 기회이다. 왜냐하면 최악일 때야말로 거꾸로 최선의 것이 당신 안에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아무

---

리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후퇴하는 일없이 항상 미래를 보고 노력해 나가면 당신은 눈 깜짝할 사이에 높은 목표를 향해 다가설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신사고(新思考) 사상의 리더인 노먼·V·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무리 당신이 최악의 상태에 놓였다 하더라도 최선의 것이 잠재적으로 당신에게 숨겨져 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해방시키고 비약하는 일이다.”

## 4. 상념법의 비결

### 목표는 아주 명확하게

말을 사용한 상념의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간단 명료하고 명확한 인생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그저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어.” “부자가 될래.”라고 ‘생각하는 것’ 만으로는 믿음까지 확대되지 못하며 우주 영이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빌 케이츠로 불리우는 소프트뱅크의 손정의씨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정하고 있다.

“난 19살에 ‘인생 50년 라이프 플랜’을 만들었다.... 우선 20대에 스스로 업계에 이름을 판다. 다음 30대에는 최소한 1천억엔의 군자금을 모으고, 그리고 40대에 한판 승부에 나선다, 즉 무언가 큰 사업을 시도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대로 이 대규모 사업을 성공시키고 60대에 경영진에게 바톤 터치한다.”

손정의씨는 40세가(98년 현재) 될까말까하지만 30대 후반에 이미 연간 2000억엔을 모았고 40이 되기 직전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합병 회사를 설립하는 등 스스로 세운 플랜을 능가할 만큼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실천 방법으로 옮겨 보자.

- \* 우선 목표를 장기(5년 이상 앞), 중기(1년에서 5년 앞), 단기(약 1년 이내) 3가지로 나누어 본다.

- \* 그리고 단기 목표로 우선 할 것을 세 가지 고른다. 이것을 A라고 한다.
- \* 단기, 중기, 장기 중에서 우선해야 할 것을 한 가지씩 고른다.  
단기는 A의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하고 싶은 것-이것을 B로 한다.
- \* 오랜 상념-A, B의 세 가지를 한 가지당 2분씩,  
하루에 6분씩 집중적으로 상념한다.  
방법은 자기의 소원을 언어로, 머리 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반복한다.  
시간, 장소, 자세는 자유지만 중요한 것은 이완할 수 있는 상태로 할 것.  
좌선 또는 편한 자세로 눈을 감거나 앉기 편한 소파에 등을 기대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잠자기 직전, 이불에 들어간 채로 등등
- \* 짧은 상념-A, B 세 가지에 대해, 또는 기타 다른 소원에 대해,  
한번에 5에서 10초 또는 30초 정도로 짧게 한다.  
이때는 통근, 통학길 전차나 버스 안에서, 영업상 이동 중이나  
점심 시간 등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설정한다.
- \* 긴 것, 짧은 것 모두 다 메모해서 정기권 안이나 수첩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언제 어디서나 바로 볼 수 있도록 한다.

다음 표는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사례이다.

만약 당신이 근무한 지 3년째, 막 25세의 샐러리맨이라고 하자.


	업무면	생활면
단기 (1년 이내 26세까지)	-주임이 된다. -현재 하는 일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연수입 2000만원	-봉사활동을 한다. -유급휴가를 살려 동남아시아 단기 여행
중기 (1년~5년 이내, 30세까지)	-계장이 된다. -영어를 마스터 한다. -연수입 7000만원	-결혼해서 첫째 아이를 갖는다. -캠핑카를 구입한다.
장기 (5년 이상 앞, 30세 이후)	-35세에 과장이 되고 난이도가 높은 국가자격증을 취득 -40세에 독립-45세에 연 10억원 -50세에 주식을 상장한다.	-35세; 둘째를 갖고 집장만 -40세; 취미 분야에서 저서 출판 -45세; 단독 주택으로 이사 -50세; 장기 휴가를 이용, 부부 유럽 일주 여행



이런 식으로 생각난 것부터 적어 두고 소원 내용을 선명하게 이미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상념을 키운다.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당신의 신념은 그만큼 강해지고, 마침내 우주 영의 강력한 후원을 받아 반드시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먼 필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을 맺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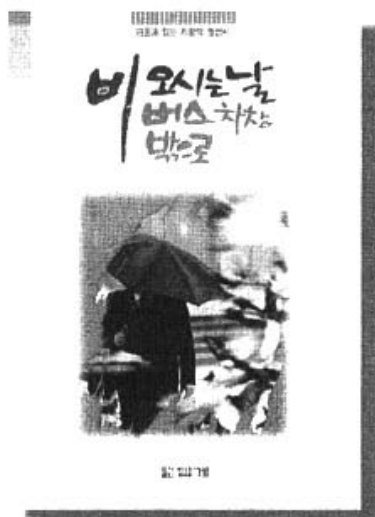
“인간의 성향 가운데는 나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항상 자신이 창조하는 대로 되는 경향이 강하다.”

“당신의 인생은 원래 외부 상황과 환경에 의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에 의해 정해진다.” 

## 책세상 엿보기

### 시집 **비오는 날 버스차창 밖으로**

김재호 지음 / 도서출판 달계 / 6,000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투쟁하고 싶다면 그리 하십시오. 모든 사고는 주관적이기에,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평화는 신의 몫이라고 발뺌하기에, 당신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믿는다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부탁하고 싶군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며, 점차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인류를 사랑하고 미래의 평화를 소망하여 그 아름다운 창조에 동참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불꽃처럼 살다 간 많은 스승과 벗들 앞에, 그저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벗어 버릴 수 없는 나의 허물을 감히 용서 받을 양으로 이 글을 씁니다.

— 머리말 중에서 —